

#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추진

### 군산시, 어업인 경쟁력·안전 강화 위해

군산시가 어업인 경쟁력과 안전 강화를 위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과 연근해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어업인들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절감 및 그린에너지 정책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3,800만원을 확보,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어선 기관 및 유류절감장비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해난사고 예방을 통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 및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2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어업인에게 레이더, GPS 플로터,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 구명조끼, 선박 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해보상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선원, 어선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보상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에 7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어업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다. /군산=한영봉 기자

이 사업은 어떤 형태의 어업에 종사하던지 재해보상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어선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보험, 어선어업 근로자인 어선원의 생명보호를 위한 어선원보험과 어업직업 중에 발생하는 부상·장해·사망 등의 보상을 위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어업 경영 개선과 안정적 조업 기반 조성, 재해보상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 코로나시대 교육격차, 대학생 일자리로 해소

### 군산시, 지역아동센터서 학습멘토 역할 기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우려 속에 군산시가 대학생 일자리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에 나선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4주간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학생 55명을 파견하여 초등 및 중학생의 학습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일꾼터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주중 하루 4시간씩 관내 20개 아동복지시설에서 105명의 아동을 전담하여 학습지원,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 정서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시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아동들에게 학습 멘토 필요 여부와 지도과목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아동의 특성에 맞춰 대학생과 아동 1:1 또는 1:2로 연결 추진했다. 대학생 공공일꾼터사업은 군산 소재 대학 재학생, 군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산 출신이지만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청년이 방학 동안 사회활동에 참여,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부터 여름·겨울방학으로 나눠 2회 진행되고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을 여름방학 사업에 선발된 대학생 총 136명 중 아동학습지원에 배치된 인원을 제외한 81명은 코로나 생활 방역 및 재난지원금 등 공공행정 분야 업무보조로 배치돼 일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방학을 활용한 대학생 일 경험 사업은 공공기관 직무체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대학생들에게 매우 호응이 높은 사업이다”라며 “특히 학습 멘토로 참여하게 되는 대학생들은 재능기부를 하며 동시에 사회 경험을 하게 되어 더욱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 개정면 지사보협, 중복맞이 보양식 지원

개정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운식)가 지난 21일 중복을 맞아 각 마을 복지 이장과 함께 저소득 독거노인,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 나기 보양식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강음식 지원사업은 개정면 지역사

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의 하나로, 농사를 짓는 세대가 많은 지역 특성상

무더위에 지친 저소득 주민들이 여름철 끼니라도 잘 챙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집에서 홀로 선종기 한 대로 더위를 식히던 한 어르신은 “혼자 먹자고 매 끼니를 차리기도 귀찮아 종종 거를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정어구이를 전달해 주시니 고맙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진현 개정면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여름철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특화 사업을 활용하여 다방면의 복지 서비스를 발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체력인증센터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3기 온라인 체력증진교실을 시작했다.

# 온라인 체력증진교실 실시

### 군산체력인증센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비대면 진행

군산체력인증센터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3기 온라인 체력증진교실을 시작했다. 이번 3기 온라인 체력증진교실은 1기와 2기 온라인 체력증진교실에 참여한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다시 한번 추가 진행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3기 온라인 체력증진교실은 7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8주간 화상회의 플랫폼 앱인 구글미트(Google Meet)를 활용하여 오전반·오후반 2개의 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오전반(화·목 10:00 ~ 11:00)은 성인병 예방을 위한 트레이닝, 오후반(월·수 15:00 ~ 16:00)은 체지방 감소와 근력증가를 위한 트레이닝을 주제로 진행된다. 매 기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3기 온라인 체력증진교실 참여자는 “온라인 체력증진

실로 집에서 쉽게 운동할 수 있고, 담당 선생님과 실시간 소통으로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체력인증센터에서 지금처럼 시민건강을 위해 힘써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서준석 체육진흥과장은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온라인 체력증진교실을 3기까지 진행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에 목표를 두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나아가는 체력인증센터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체력인증센터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을 수료한 5명의 전문운영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만 11세 이상이면 누구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력측정과 개별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 지역 소식 통

### 익산시, 미륵산 등산로 조성사업 본격화

익산시는 역사와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미륵산 명품등산로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 23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미륵산 등산로 조성을 위해 전문가와 지역민의 의견을 담은 기본계획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는 미륵산의 자연경관과 함께 미륵사지, 국립익산박물관 등을 권역화하는 등산로 조성을 통해 파급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등산로는 삼기면 죽청마을과 미륵산 정상을 연결해 마을과 순환할 수 있는 마을길을 조성한다. /김재훈 기자

### 군산시, 외국인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

군산시가 인근 지역 외국인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됨에 따라 외국인 집단 감염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익산의 한 노래방에서 모임을 한 외국인 6명이 집단 감염에 따라 유학생, 근로자 등 외국인에 대해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한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을 고용해 시설을 운영하는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의 사업주나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에게 소속 외국인의 코로나19 이상 증상이나 예방 차원의 진단검사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유학생, 교사·강사, 근로자 등 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코로나19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사업주 등 관련자께서는 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예방 차원의 검사를 독려해 주시고 개인위생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달라”라고 말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 월명동 신임동장, 폭염·감염병 대비 안전 점검

군산시 월명동주민센터 운영철 신임동장은 지난 23일 경로당 9개소를 순회 방문하여 취임 인사, 폭염·감염병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노인들의 안부를 살폈다. 이날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 경로당 운영현황과 폭염대비 냉방기기 가동상태 확인 등 무더위 쉼터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폭염 시 안전행동 수칙도 안내하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동장은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특히 폭염 및 감염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 건강한 여름을 나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